

聖語藏經卷 개관*

An Overview of the Hand-copying Sutras Preserved in
Shogozo(聖語藏) of SHOSOIN(正倉院)

杉本一樹 (Kazuki, Sugimoto)**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5.1 東大寺 |
| 2. 성어장 경권의 현황 | 5.2 一切經 |
| 3. 성어장 경권과 동대사 尊勝院의 역사 | 5.3 華嚴教學 |
| | 5.4 8세기 |
| 4. 성어장 경권의 이용: 조사와 보급 | 6. 마무리 |
| 5. 성어장 경권의 의의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고대 이후의 불교경전군인 성어장 경권에 대하여, 역사·내용·가치 등을 개관한 것이다. 성어장 경권은 일본 奈良 東大寺에 전해진 중국 사경, 동대사에서 서사된 8세기의 고대 일본 사경[一切經]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그 후 동대사 尊勝院의 교학의 발전과 함께 그 경장에 축적·전래된 경권이다. 근대에 이르러 동대사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궁내청 정창원사무소에 의해 국유 재산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목록상의 수는 약 5,000권을 헤아린다. 신뢰성이 높은 양질·대량의 텍스트이며, 화엄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불교학·역사학·일본어학·서예사·종이의 역사 등을 생각하는 데에 일급 자료이다. 그 가운데에는 8세기의 사경과 같이, 정창원 문서에 의해서 서사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며 해외 문화의 적극적 수용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어학·문자사의 자료가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要語: 성어장 경권, 고대 사경, 동대사, 정창원 문서, 화엄교학, 8세기 동아시아불교사, 일본고대사, 일본어학, 서예사, 동아시아의 종이, 궁내청 정창원사무소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2-A00091).

** 일본 궁내청, 정창원 사무소장(ksugimoto@kcn.jp)

접수일: 2013년 12월 14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paper's aim is to give a total overview of the hand-copying sutras in *Shogozo*(聖語藏) of SHOSOIN(正倉院). They were made up both chinese hand-copying sutras conveyed from Tang or Sui China to *Todaiji*(東大寺) in Nara period of Japan and classical Japanese hand-copying sutras copied in *Todaiji* in the 8th century. After that, the hand-copying sutras piled up high and inherited in the library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buddhist study of *Sonshoin*(尊勝院) in *Todaiji*. *Shogozo* was separated from *Todaiji* in modern times. The hand-copying sutras in *Shogozo* were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by the Office of the SHOSOIN Treasure House of Japan and reached to about 5,000 sutras. They are of a good quality and of a large quantity of texts and the first grade materials to research Buddhism, history, Japanese language, history of calligraphy and paper of East Asia for the center of Huayan(華嚴) study. Through the Nara hand-copying sutras in the 8th century, we can clearly investigate the process of copying sutras with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 and understand the aspect of the positive acceptance of the foreign culture. They also contained the materials on Korean language and the history of the chinese charac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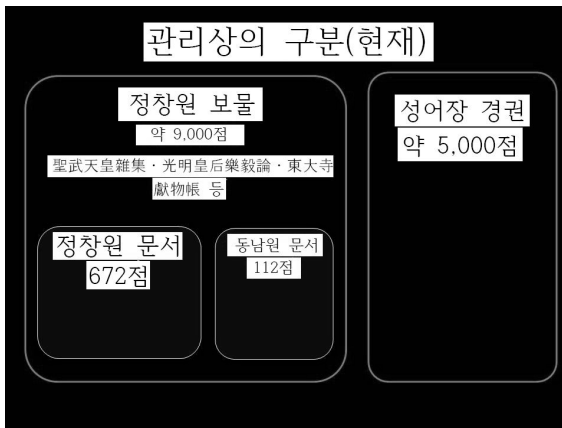
Key words: hand-copying sutras preserved in *Shogozo*(聖語藏) of SHOSOIN(正倉院), the classical hand-copying sutras, *Todaiji*(東大寺),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文書), Huayan(華嚴) study, East Asia buddhist history in the 8th century, ancient history of Japan, Japanese linguistics, history of calligraphy, paper of East Asia, Office of the SHOSOIN Treasure House, etc.

1. 들어가가기¹⁾

정창원 보물, 정창원 문서, 성어장 경권은 현재 궁내청 정창원사무소가 책임 관리를 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과 공개, 학술적 이용에 대하여 무엇이 요구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 나가야 하는가. 이 글은 현장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과 정보의 발신을 시도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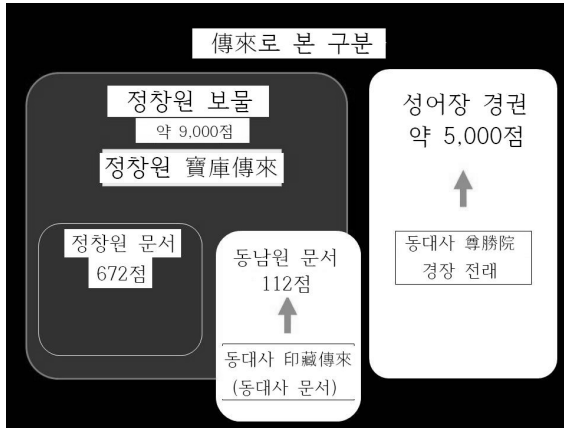
그전에 정창원 보물, 정창원 문서, 성어장 경권에 대해 설명을 해 두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관리 상의 구분에 따라 설명을 진행하지만, 그 외에 전래(역사적 유래)에 따른 구분, 성립 시기에 따른 구분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그 각각을 그림으로 정리해서 보이겠다(<그림 1>~<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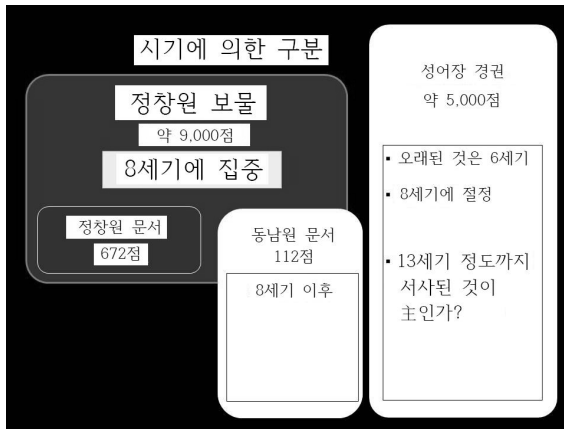


<그림 1>

1) 이 글은 2013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캠퍼스 규장각에서 열린 한국 구결학회 제45회 전국학술대회의 강연 내용이다. 당일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재영 박사를 대표로 하는 “신라 사경 연구” 프로젝트의 해외 회원인 스키모토 외 궁내청 정창원 사무소의 연구원인 飯田剛彦, 佐々田悠 세 사람이 ‘聖語藏經卷’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시금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올린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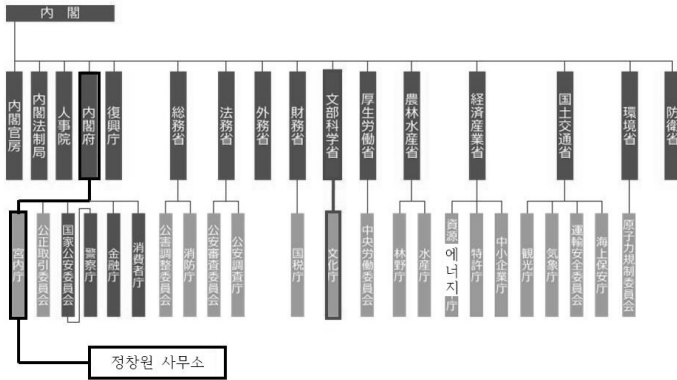


<그림 3>

현재, 일본에서 국가의 문화재 행정을 주관하는 것은, 문부 과학성 소속의 문화청이며, 국보·중요 문화재의 지정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기에서 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창원 보물을 관리하는 정창원 사무소는 현재 궁내청에 속해 있다. 그 이유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8세기에 聖武天皇의 유품을 중심으로

성립했다는 유서와 그 이후, 관리의 측면에서도 황실이 근본적인 면에서 역할을 해왔다는 진통에 근거하고 있다. 국보도 정창원 보물도, 함께 국유재산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창원 보물은 국보·중요 문화재라는 카테고리와는 독립되어 있으며, 그 관리는 정창원 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다.



「정창원 보물 및 정창원 보물을 관리하는 기관」(공내청 조직령)

<그림 4>

정창원 보물은, 일본 국내를 넘어 잘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고대 사료인 정창원 문서에 대해서도,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1년 11월, 정창원 문서의 전체상과 연구의 도달점을 소개하려고 하는 시도로, 서울 국립 중앙박물관과 일본 국립 역사 민속박물관의 공동으로 열린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12년 11월에는, 정창원 문서 연구의 현황을 나타내는 국제 워크숍 「정창원 문서의 이해」가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문리각 주최로 개최되어, 현재의 정창원 문서를 리드해 온 사카에하라 토와오(榮原永遠男) 씨와 그 문하생인 사기모리 히로유키(鷲森浩幸) 씨, 야마시타 유미(山下有美) 씨 등 세 분에 의한 발표가 행해졌다.

우리가 속한 공내청 정창원사무소 연구원도, 위의 발표자와는 연구 상 밀접한 교류가 있어, 발표 당일 배포자료에서 높은 수준의 정중한 해설이 행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은 정창원 문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청자인 한국의 연구자 제위에게도 정창원 문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정창원 문서 자체 쪽에도 책임이 있다. 아주 세세한 내용의 사료의 원본이, 종류도 양도 많이 남아있다. 연구는 얼마든지 세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밀함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정창원 문서의 전체상을 잡는 것이다. 이 마이크로와 매크로, 분석과 종합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정창원 문서 연구는 진척되어, 상당한 양의 저서와 논문도 축적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성어장 경권'이 본고의 주제이지만, 이것은 정창원 문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필자와, 관련 보고를 하는 飯田剛彦, 佐々田悠는, 세 명 모두 대학에서 일본 고대사를 전공하였고, 채용된 시기는 물론 다르지만 궁내청 정창원 사무소에 정창원 문서·성어장 경권의 전문 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사다의 논문은 사경소 문서(정창원 문서의 본질이다)와 성어장 경권과의 관계를, 光明皇后 발원의 五月一日經의 사경사업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처음에 소개한 야마시타 유미 씨의 보고서에서 다룬 주제에 다른 각도로 접근한 것이다.

이이다의 논문은 성어장 경권의, 五月一日經(제3류)과는 다른 그룹인 “神護景雲二年御願經”(제4류)에 대해서, 경권 그 자체의 관찰과 정창원 문서를 종합하여 생각함으로써 얻은 최신의 연구 성과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논문이다.

성어장 경권과 정창원 문서,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설명해 둔다.

8세기에 일본에서는 국가적 규모로 사경이 행해졌다. 이 완성품으로서의 사경은, 성어장 경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문서가 정창원 문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으로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일본 고대사 연구 위에서 성어장 경권은 정창원 문서만큼 학술적인 이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시점에서는 성어장 경관을 사료로서 활용한 연구는 아직 적다. 이것은 연구 자료로서의 이용 환경(사용의 용이성)에 관계하고 있다.

둘째, 성어장 경관은 정창원 문서와의 관계를 초월한, 큰 넓이를 갖는 동아시아 불교사 속에 자리 매김할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을 단지 일본 고대사의 사료로서만 취급하는 것은 본래의 가치를 부당하게 좁히고 있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뒤에 또 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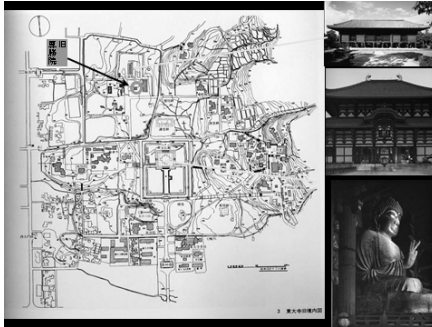
2. 성어장 경관의 현황

‘성어장 경관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전래의 관점으로는 동대사 존승원의 경장 성어장에 전래된 경권군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장자의 관점으로는, 국가가 소유, 궁내청 보관, 관리는 정창원 사무소라는 것이 된다.

현황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권이 동대사에서 분리되어 황실에 헌납된 것이 1893~94년(明治 26~27)의 일이다(요코우치 2005). 이때는 궁내성 寶器主 管에 의해 관리가 되었다(宮內大臣封). 여기가 최대의 전환점이다. 1896년(明治 29)에는 성어장 건물도 정창원 구내로 移築되었다(<그림 5>~<그림 8>).



<그림 5>



<그림 6>



聖語藏

<그림 7>



「藏語聖」

<그림 8>

이후 1908년(明治 41)에는 궁내성 帝室博物館의 관리로 옮겨진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7년(昭和 22)에 박물관이 문부성으로 옮긴 후에도 성어장 경권은 궁내성의 관리 하에 두어 조직 개정을 거쳐 계속 궁내청 정창원 사무소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宮内廳長官封).

1960년(昭和 35), 경권은 성어장을 떠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東寶庫에 格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림 9>~<그림 10>).



<그림 9>



<그림 10>

같은 창고에는 정창원 보물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 공조 설비를 갖춘 보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경권은 대략 10권을 단위로 춘경도의 4단 불경 상자(표준)에 수납하고 있다. 상자의 제작 시기는 明治 37~38년(1904~5)에 집중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추가 제작이 있었으며 大正 13년(1938)의 제작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1회 총 점검을 행하여 방충제 교환·용기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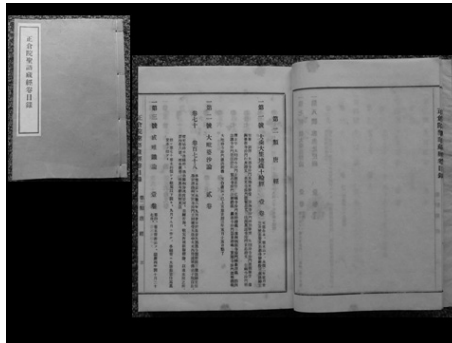
궁내성 帝室博物館의 관리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권의 분류 정리(1909년)가 행해졌다. 많은 경권을 분류하기 위해, 성립시기·지역을 지표로 해서 큰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담당자로서는 股野琢, 久保田鼎, 今泉雄作이란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 정리(제1차)가 다음 해에 완료되자, 계속해서 수리 규정을 세워 수리가 시작되었다(도쿄국립박물관 1973). 초기의 수리는 경권 조각을 모아 한 권으로 하는 등 본적 수리에 앞서 시범적 색채가 강했지만, 몇 년 만에 정책이 안정되었다. 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종류 구별의 재검토가 행해지는 일도 있었다. 또한 다른 경권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거나, 동일 경권을 정리하거나 하여 숫자상에 변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수리가 끝난 경권은 권자(卷子)의 축 연결 부분에 황벽(黃蘗)으로 염색한 화지(和紙)를 삽입하고, 수리 경권명, 수리 연월, 수리

책임자의 서명을 기입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大正 7~9년 경의 수리기(修理記)에는 당시 제실 박물관 총장의 책임에 있던 문호 森鷗外の 서명(본명 森林太郎에 도안화 한 기호를 가했다)도 볼 수 있다. 이후 수리기의 삽입은 축 연결 부분을 벗겨내는 일이 되고 옛 모양의 파괴가 되기 때문에, 1940년(昭和 15) 수리분(修理分)부터 별지를 준비하여 축 연결 부분에 감아 넣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해서 1912년경(明治 45, 大正 1)에는 제2차 분류 정리가 완료되어 현재의 분류가 거의 성립되고 목록도 완성되었다(수리는 제4류 도중까지의 단계). 그것을 인쇄에 부친 것이 1930년(昭和 5) 인쇄인 『정창원성어장경권목록』이다(<그림 12>).



<그림 12>

우리는 현재도 관리의 기준으로서 이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테두리 안에 보인 것이 이 목록의 내용이다.

『정창원 성어장 경권 목록』의 내용 구성 (괄호는 丸善株式會社 디지털 출판)

寫經之部				
第1類	隋經	8점	22권	(제1기)
第2類	唐經	30점	221권	(제1기)
第3類	天平12年御願經	126점	750권	(제2기)
第4類	神護景雲2年御願經	171점	742권	(제3기)
第5類	甲種寫經	90점	316권	(제4기)
第6類	乙種寫經	290점	2,012권	(제5기: 간행 중)
版經之部				
第7類	寬治版	1점	8권	
第8類	宋版	12점	114권	
第9類	甲種版經	7점	54권	
第10類	乙種版經	33점	703권	
雜書之部				
第11類	雜書其他	15점	18권	
	계	783점	4,960권	

주: 이 목록에서는 卷·帖을 구별하지 않고 卷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 목록은 불경을 사경·간경(刊經)으로 나누어(非佛典은 마지막에 雜書 항목을 설치), 그 중에서는 대체로 시대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점수는 지금도 수리 진척에 따라 증감이 있고(현재 4,947점), 연구의 진전에 따라 시기 판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정창원 사무소에서는 유별·번호·이름 등 이 목록을 기준으로 한 후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면서 앞으로도 사용해 갈 방침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목록의 권수 4960에 의거해 경권에 0001~4960의 고정적 ID를 부여하고, 수리에 의한 통합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결번, 새로운 경권이 출현한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3. 성어장 경권과 동대사 尊勝院의 역사

이 글에서는 성어장 경권과 함께 정창원 문서도 자주 언급한다. 또한 정창원 보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깊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8세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추가해 두겠다. 즉 일본에 있어서 8세기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시대였는가 하는 것이다.

정창원 보물의 성립과 깊이 관련된 인물이 쇼무 천황(701~756)과 그 왕후인 光明皇后(701~760)이다. 그의 통치는 8세기 중엽 즈음에 해당하며, 연호와 관련해서 덴표 시대(天平時代)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말하는 나라시대(수도가 나라의 땅에 놓인 710~784년을 말한다)의 중앙에 위치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쇼무 천황이 756년에 사망한 후에 光明皇后에 의해 동대사 대불에 헌납된 많은 물품이 현재에 전해지는 정창원 보물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쇼무 천황의 시대는 국내적으로는 내란이나 전염병 유행 등의 고난도 있었지만, 일면에서 불교를 지원하는 국력에 충실했던 시기로, 7세기에 시작되는 본격적인 율령국가 형성은 일단 여기에서 완성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대륙에서는 막강한 당나라 제국이 안사의 난을 맞이하기 직전 한국에서는 백제·고구려의 멸망 후에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나서 반세기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상대적 안정기에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당나라에 파견된 견당사도 8세기 전반에는 활동이 성행했다.

이 쇼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문화를 물질로 집약된 형태로 대표하는 것이 정창원 보물이라 하면, 성어장 경권, 정창원 문서는 당시의 지적 활동의 최고 수준(경진)과 그것을 지지하는 보다 광범한 불교문화와 관련된 생산 활동의 흔적으로서, 역시 8세기 일본 문화의 일면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소개된 문물·기술·제도를 일본에 적합하게 재편성하여, 국내 생산을 행하거나 하는 사례는 고대 일본에 많이 보이지만, 이를 포함하여 정창원 보물, 성어장 경권으로부터 엿보이는 天平 시대의 문화는 유달리 국제색이 풍부하다.

이상의 시대 배경에 성어장 경권을 놓고 보겠다.

먼저 가장 큰 특징으로 동아시아 고대 사경군으로 양이 많고, 질도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 국내의 다른 곳에 소장된 것과 비교하면 오랜 시대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9세기 초두까지 사경이 주로 언제 서사되었는지가

명기된 것을 선택해 예시적으로 늘어놓아 보기로 한다.

(9세기 초두까지의 例示)

- 610년(隋 大業 6)賢劫經 【隋經】
- 651년(唐 永徽 2)大乘大集地藏十輪經 【唐經】
- 655년(唐 永徽 6)大毘婆沙論 【唐經】
- 659년(唐 顯慶 4)成唯識論 【唐經】
- 740년(天平 12)光明皇后願經五月一日經 願文 【天平12年御願經=第3類】
- 750년(天平勝寶 2)維摩詰經 【甲種寫經】
- 754년(天平勝寶 6)大寶廣佛華嚴經 【甲種寫經】
- 755년(天平勝寶 6)光明皇后願經五月一日經 勸經
- 768년(神護景雲 2)稱徳天皇願經 【神護景雲2年御願經=第4類の一部】
- 774~776년(寶龜 5~7)今更一部一切經 書寫 【神護景雲2年御願經=第4類】
- 798년(延曆 17)觀佛三昧經 【甲種寫經】
- 825년(天長 2)法華決釋記 【甲種寫經】

第1類 隋經, 第2類 唐經에서는 중국본토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6세기 이전의 것은 전해지지 않지만, 일본으로의 불교 전래의 시기를 감안하면 이상한 것은 아니다. 659년의 성유식론 등은 경전 그 자체의 성립시기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당나라에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일본에 율법을 전한 당나라 승려 감진이, 자신의 일본 방문과 함께 가지고 왔던 四分律도 唐經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藏書印에서 쇼무 텐노의 바로 옆에 놓아져 있었을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유래로 일본 그리고 동대사에 소개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많다.

8세기 사경으로는 서사의 경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제3류 天平 12년 御願經, 제4류 神護景雲2년 御願經의 經卷이 모두 합쳐 1,500권이라는 지극히 매우 많은 수에 이른다.

天平十二年御願經은 光明皇后가 부모의 명복을 빌고 발원한 一切經에서 ‘天平十二年五月一日’의 願文을 가지는 것부터 ‘五月一日經’의 통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록의 범위는 일본에 새로 소개된 “開元釋教錄”의 所載 경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서사의 도중 단계에서 수록 범위가 확장된다).

神護景雲二年御願經은 稱徳天皇의 발원에 의한 동년(768)의 一切經과, 774~

776년(寶龜 5~7)에 서사된 今更一部一切經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종류로 파악했던 것이다. 서사의 저본으로는 선행하는 五月一日經이 상정되고 있다.

8세기에 성립된 위의 사경군은 같은 시기에 성립한 정창원 문서, 정창원 보물과 표리 일체가 되어 이즈음을 성어장 經卷의 최대 피크라고 생각해도 좋다. 또한 8~9세기의 사경 등 오래되어 가치가 높은 것이지만, 어디에서 서사되었는지 모르는 것은 第5類甲種寫經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의 隋經, 唐經, 神護景雲經의 명칭은 관리상 고정되어 있지만, 학술적 시대 판정, 제작지 판정에는 수정을 요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나라 시대(710~784)의 一切經(天平, 神護景雲, 寶龜), 平安初期의 寫經(주로 甲種寫經) 등 대세는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시기의 것으로는 鎌倉~南北朝(14C)로 내려가는 것이 있다(스기모토 1985, 1997 참조).

이 외에, 제7類 寬治版, 第8類 宋版을 포함하는 刊經類는 일본 서지학의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第11類 雜書에도 소수이지만 老子河上公注, 蒙求, 白氏文集要文抄 등 귀중한 한적을 포함하며, 일부는 복제 출판이 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학계에 소개되었다(佐佐木信綱 『南都秘笈』).

성어장 경권이 놓여 있던 尊勝院은 동대사의 子院으로, 헤이안 시대 955년(天曆 9)에 別當光智(894~979)이 村上天皇의 칙명을 받아 건립되었다(天德 4년(960) 이전의 성립이라는 설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어장 經卷의 대부분은 이 시점까지 태어나 있었던 것이며, 이들이 언제 어떤 경로로 尊勝院 聖語藏에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단, 尊勝院이 華嚴, 眞言의 二宗兼學, 양쪽 모두를 배우는 장소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화엄도 밀교도, 불교학 중에서는 가장 새로운 단계로 성립해 온 학과이며, 신흥의 전문 분야를 학습 거점으로서 동대사의 교학의 중심이 된 명문이었다. 현재에도 대학마다 꽃 모양의 학부가 있지만, 尊勝院家들로부터는 景雅, 弁曉(1139~1202, 尊勝院復興, 華嚴教學復興), 尊玄, 明惠(1173~1232, 栴尾高山寺, 弁曉에 의해 華嚴學頭로 맞이하), 宗性(1202~1278, 著作多數), 光曉, 聖禪, 覺璣이라는 일본 불교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과 같은 많은 학승이 나온다.

이후 1008년(寬弘 5)에 尊勝院이 불탔다고는 하지만, 현존의 경권에 화재에 의한 손상의 흔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어장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했다고 볼 수 있다.

12세기 말 헤이안 말기 源氏와 平家の 무사 세력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 1180년(治承 4) 싸움은 奈良에서는 平重衡에 의한 南都 화공(火攻)으로 기억된다. 동대사에서는 본존을 안치하는 대불전과 북방의 三面僧坊이 전란의 兵火에 걸려 불타고 尊勝院도 불탔다. 이때의 罹災는 창건 이래 최대의 피해였다고 볼 수 있지만 經卷 자체가 받은 피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때, 거리로는 대불전에서 가장 가까운 정창원 보고에 화재가 미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1200년(正治 2) 尊勝院은 院主弁曉에 의해 재건되었다. 정창원 구내에 현존하는 성어장 경장은 이때 지어진 것이다(堀池 1954).

건축 양식은 8세기의 오래된 형식을 가지는 校倉 구조물(단면 삼각형의 재료를 짜고 벽을 건설하고 직접 지붕을 지원)이지만, 나무의 재단이 가늘고 섬세하여(斷面楔形에 가까운) 바닥 기둥의 배치가 중앙 사이를 약간 넓게 잡는 등은 중세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한다(清水 2001).

또한 현재 ‘聖語藏’이라고 적힌 편액이 전면에 걸려있다. 이 단어는 ‘석가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거둔 창고’라는 이른바 보통 명사로, 이 명칭이 창건 당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그 기원은 불분명하다.

그 후 尊勝院의 기세는 쇠약해져 1572년경(室町時代 末)에는 폐절되었다. 근대에 들어 1878년(明治 11)에 건물은 奈良町에 팔려 鼓阪小學校가 되었다.

성어장 경권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8세기까지의 것이 많지만, 그 시대의 것이 숫자로서는 더 많다. 이러한 경권은 尊勝院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직 확인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마쿠라 시대 13세기 초 건물의 부흥과 아울러 정창원 綱封藏(南倉)에서 光明皇后御願經(天平十二年御願經)이 여기에 옮겨진 것도 알려져 있지만(堀池 1980), 통시적으로 본 經卷群의 움직임의 전모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밝혀질 곳이 많다.

4. 성어장 경권의 이용: 조사와 보급

조사를 크게 나누면 정창원 사무소 직원이 修理, 台帳作成, 出版 등 제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요청에 응하여 학계의 협력이라는 형태로의 조사로 나뉜다. 주된 분야는 불교학, 일본어학(국어학)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후자 쪽이 정창원 사무소의 조사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해 있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겠다.

○ 외부 조사: 學界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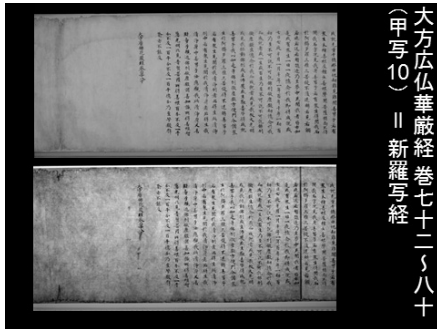
- 1916~23년(大正 5~12), 大矢透博士에 의한 調査(일본어학)
- 1922~27년(大正 11~昭和 2), 『大正新脩大藏經』刊行에 즈음하여 성어장 경권을 校勘本으로서 이용(불교학).
- 1931~39년(昭和 6~14), 春日政治博士에 의한 조사(일본어학)
- 1948년(昭和 23), 白點調査를 위한 經卷出藏(일본어학).
- 1950년(昭和 25), 東大寺圖書館, 東大寺 所藏 經卷과 一類의 經卷에 대해 열람 조사를 개시.
- 1951~53년(昭和 26~28), 국어학자(훈점어학)에 의한 點本調査(1977, 1979(昭和 52, 54), 2006(平成 18)).
- 1953~59년(昭和 28~34), 교토대학인문과학연구소에 의한 隋經, 唐經의 調査(塚本善隆 외).
- 1955~(昭和 30~40년대), 譯讀文, 사진의 공개(訓點語學會 『訓點語と訓點資料』, 『書陵部紀要』, 『正倉院年報(紀要)』 그 외에), 模寫本으로의 移點(鈴木一男).
- 1998~2002년(平成 10~14), 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金特定領域研究「古典學の再構築」調整班研究B02「전승과 수용(일본)」(末木文美士, 月本雅幸, 杉本一樹)
- 2007년(平成 19), 한자 자체 규범 데이터 베이스 편찬위원회(委員長: 石塚晴通) 『漢字字体規範데이터 베이스 Hanzi Normative Glyphs』에 있어서 성어장 경권 『四分律』의 畫像公開

먼저 불교학에서는, 경전의 가장 좋은 텍스트로서 이용되어 온 ‘大正新脩大藏經’의 본문 교정에 공헌이 있다. ‘大正新脩大藏經’의 간행에 즈음하여 隋經, 唐經, 天平

願經, 神護景雲願經, 甲寫, 宋版 등 총 1,989권이 성어장에서 出藏되어 東京帝室博物館에 옮겨 교합작업이 행해졌다. 여기에서 과생된 업적은 설명을 다 할 수 없다.

일본어학에서는 大矢透 박사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시작되는 소위 훈점어학의 성립에 성어장 경권은 크게 기여하고 있다. 훈점 자료 가운데 오랜 시기의 것이 성어장에 집중하고 있어 이 학문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창원은 장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조사를 받아 온 바 있다. 최근에는 화상출판에 의해서 이용환경이 정비된 결과, 한자 자체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하는 재료로서의 이용도 행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예로서는, 동대사 도서관의 조사가 있다. 원래 同類 내지 관련이 깊은 경권이 동대사와 성어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예가 있어 양자를 종합한 목록 작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조사이다. 이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堀池春峰 氏의 業績(堀池 1980)은 현재에도 동대사의 역사, 문화를 배울 때의 표준이 되고 있다. 또한 화엄경을 중시하는 학통으로부터 최근에는 화엄경의 계통적 조사(동대사 도서관 2005), 신라 서사 화엄경의 발견(야마모토 2006, <그림 13>) 등의 성과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있다.



<그림 13>

보다 넓은 시야에서의 종합 조사로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가 수당 시대의 기초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서 隋經, 唐經의 조사를 실시하여(塚本善隆 외) ‘古典

學의 再構築’에서도 성어장을 테마로 들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 정창원사무소에 의한 조사

정창원에서는 1910년(明治 43)에 수리를 시작한 이후 오래도록 수리가 선행되고 있다. 수리에 앞서 서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확인, 수리 사양의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도 행해져 왔으나 수리를 마친 경권을 대상으로 대장 작성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서는 1954년(昭和 29)부터 작성이 시작되었다. 현재 성어장 경권의 거의 전체에 대해서 완료되어 있으나 조사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기 때문에 내용, 형식의 통일이 세부까지 철저하지 않다. 또한 외형적인 조사에 그쳐, 서지학, 목록학적 범위에 한해서도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과의 일부는 연구소 직원의 논문, 연차 보고서, 사료소개의 형식으로 기관의 기요에 발표되어 왔다. 처음에는 “書陵部紀要”(1951년 창간)에, 1979년의 『정창원 연보』 창간 후는(19호 이후 ‘정창원기요’로 명칭 변경) 여기에 발표하고 있다. 필자가 이전에 발표했던 四分律에 관한 논문(스기모토 2007), 飯田剛彦의 神護景雲二年御願經에 관한 논문(飯田 2012), 성어장 경권의 조사원인 米田雄介의 논문(米田 2001, 2004)은 모두 『정창원기요』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 『정창원기요』는 정창원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既刊號 모두 공개되어 있고, PDF 형식으로 볼 수 있다(<http://shosoin.kunaicho.go.jp>).

또한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학술자료 공개의 수단으로서, 2000년(平成 12)에는 성어장 경권 컬러 이미지 디지털 출판을 시작 했다. 고가이지만 ‘大正新脩大藏經’에 의한 활자 번각이나 卷首, 卷末만의 흑백 사진의 단계에서 컬러 이미지에 의한 기입까지 포함한 모든 텍스트, 현재의 형태 통째의 공개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적인 진보이다. 불교 경전으로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성어장 경권의 가치로 보면 결코 과잉 장비가 아닌 금후 연구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類別順으로 간행이 진행되어 제6류 을중 사경에 들어가 있다.

또한 이 촬영 준비 과정에서 사전 확인 작업도 조사 환경의 정비에 유익하다.

이 출판 사업은 가장 침해한 보급의 형태이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넓은 보급의 방법으로서 전시회로의 출진 공개가 있다.

1926년(大正 15), 도쿄 우에노의 帝室博物館 表慶館에 聖德太子의 御遠忌를 기념하여 성어장 경권의 진열이 행해졌다. 공개의 선구적인 예이다. 이것이 정착하기에는 전후가 되고 나서이며, 1946년(昭和 21)부터 시작된 나라 국립 박물관의 正倉院展에서 1953년(昭和 28)에 처음으로 성어장 경권이 출진되어 이후 매년 출진이 예가 되고 있다.

이 전시회는 회기가 길어야 20일로서 최근에는 매우 혼잡하지만, 매년 3권 정도가 전시되고 있다. 畫像에 의한 학술 자료로서의 이용 환경이 디지털 출판의 개시에 의해서 크게 확대된 지금도 일반인들에게는 현물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또한 출판물, 학술 발표 등을 통해 일반, 학계를 위한 소개가 행해지는 일도 있다(檜山 외 1999).

5. 성어장 경권의 의의

먼저, 성어장 경권의 첫 번째 가치로서 매우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00년 6월 중국 내륙의 돈황에서 莫高窟藏經洞이 발견되어 많은 한문 불교 경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연구 상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날조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것 이후에 세상에 나타난 오랜 시대의 중국 사경에 대해서는 진위 판정을 거쳐 위조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성어장 경권은 明治 유신의 대변혁 이후, 1877년(明治 10) 무렵에 나라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던 堺縣(奈良縣이 頃堺縣에 흡수되어 있었다)에 의해 관봉이 붙어 엄중한 관리 하에 이행되고 있었다. 또한 동대사에서 황실로의

헌납 움직임이 일어나는 1893년(明治 26) 이전, 늦어도 그 수년 전까지 경권 목록이 동대사 측에서 작성되어 있어 헌납 진후에 내용물의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엿보인다.

明治 초년이라고 하면, 廢佛毀釋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불교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古經卷의 가치는 현저하게 저하된 시대였다. 위조할 필연성이 없는 가운데 일부러 수고를 들여 위조한 것을 聖語藏에 넣도록 하는 상황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 진정성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성어장 경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이 보고 싶다.

동아시아 고대 사경군으로는 질, 양 모두 출중하다는 것 가운데에는 옛 것의 비중이 크게 포함된다. 이하 이 점을 ‘東大寺’, ‘一切經’, ‘華嚴教學’, ‘8世紀’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보고 싶다.

5.1 東大寺

동대사는 일본의 중심 사원으로서 8세기 중엽에 건립된, 최고의 寺格을 가진 사원이다. 그곳에서는 ‘南都六宗’(三論宗, 法相宗, 俱舍宗, 成實宗, 華嚴宗, 律宗)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학파의 교리를 배울 수 있어 당시 일본 불교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존재였다. 별첨 자료로서 첨부한 동아시아의 불교사 연표를 개관하면, 중국 본토에 정착한 불교가 고구려, 백제에 전해져 같은 한국에서도 신라에 받아들여지는 시기, 나아가 바다를 건너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지는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사 속에서 일본은 중국 대륙, 한국에서 전래된 불교를 수용하여 독자적 학문으로서 깊어 갔다. 그 결과 도달할 수준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일까. 당, 신라의 불교학과의 비교를 행하는 장소를 설정할 때, 동대사 이상으로 어울리는 장소는 없다. 9세기가 되어 일본 불교가 새로운 전개를 보이지만, 그 평안 불교의 開祖도 동대사에 공부하고 있었으며 동대사 학문의 전통을 기초에 두고 있는 것이다.

5.2 一切經

성어장 경권에 포함된 경권은 각 시기의 ‘一切經’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어장 가운데에서는 국내 最古의 一切經이 되는 天平十二年御願經(別名 五月一日經)은 일본 고대에 서사된 一切經으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나라 시대의 연호 12년御願經은 『開元釋教錄』에 기재된 5,048권의 경전을 기반으로 그 이외의 錄外經(別生, 疑僞 등)이나 章疏까지 모든 불전 수집을 지향하고 있고 그 포괄성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성격은 이것 이후에 필사된 一切經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 정창원 문서가 있는 덕분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奈良時代 一切經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와 구성을 알 수 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눈을 동아시아 전체로 돌리면 한역경전이라는 공통의 지반 위에서 당, 신라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불교와 일본 불교와의 대비가 구체적인 교의의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典籍 전반에 보이는 경향이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성전의 복제 전달의 주된 방법이 필사에서 인쇄에 의한 간행으로 이행한다. 현재의 표준 텍스트는 이 변화의 영향을 입은 반면, 성어장 경권은 이전 텍스트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佚存書라 하며 중국 본토에서 잃어버린 전적이 일본에 남아있는 사례가 많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隋唐 시대에 일시 폭발적으로 유행한 후 탄압되어 소멸한 三階敎의 경전도 성어장에 남아 있다.

5.3 華嚴敎學

동대사 교학의 핵심인 ‘화엄교학’은 별첨의 불교사 연표에 보이는 대로 중국의 종파 성립의 순서와 마지막으로 일본에 전해지는 순서와는 같지 않다. 천태·정토 교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훗날에 다시 발견되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서 三論, 法相, 華嚴은 비교적 중국에서의 성립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일본에 도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華嚴은 당, 신라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시기에 발전했다.

중국에서는 화엄 사상은 7세기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심화를 계속하고 있는 도상에 있었다. 또한 신라는 7세기 후반 이후 원효, 義湘이 나오고, 화엄 연구의 신라 승려의 활약의 장소는 당, 일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화엄은 나라 시대의 쇼무 천황의 독실한 귀의를 받아, 국가를 지지하는 교리로 채용되어, 여러 문서에서 경전·교학의 초기 수용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때, 교의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던 大安寺 僧審詳(審祥)은 ‘新羅學生’, ‘靑丘留學’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신라에 유학하여 화엄의 學匠 아래에서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땅의 석학이 저술한 연구서(論疏章)를 일본에 가져왔다. 이 동아시아 삼국의 화엄교학의 전개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정창원 문서와 성어장 경권은 빠뜨릴 수 없는 사료이다(堀池 1973).

또한 동대사의 화엄교학은 고대 이후에도 일관해서 중심적 교의로 계속 이어져 제2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많은 학습을 배출했다. 성어장 경권에는 소위 신불교가 일어난 鎌倉時代의 경전류도 많고, 거기에 남은 많은 기입은 경전을 배운 귀중한 흔적이다. 이 화엄 연구는 현대의 동대사에도 이어지고 있어 이 오랜 역사의 기간에 傳受, 變容 등을 생각하기 위한 깊이 있는 소재군으로서 성어장 경권은 무계를 가진다.

또한 내가 준비한 연표에는, 불교의 주요 종파 중 선종과 밀교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선종은 신라 시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이후 번성하고, 밀교는 일본에서 9세기 이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만, 본고에서는 8세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5.4 8세기

마지막 키워드로 ‘8세기’를 꼽는다. 이 시대는 일본 고대사의 사료, 미술사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한 연구 상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시대라고 불린다.

동대사의 사경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한 상세하게 보이는 정창원 문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료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성어장 경권과 정창원 문서와의 겹침이 8세기에 가장 커진다. 사경을 '사물'로서 역사학적 또는 미술사적으로 파악할 경우 완성품 제작 과정의 쌍방을 하나로 해서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

이 시대의 문화는 해외에서 소개된 문물, 기술, 제도를 일본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하거나 국내 생산을 행하거나 하는 사례가 많다. 정창원 보물의 풍부한 사례를 들 것도 없이 한층 국제색이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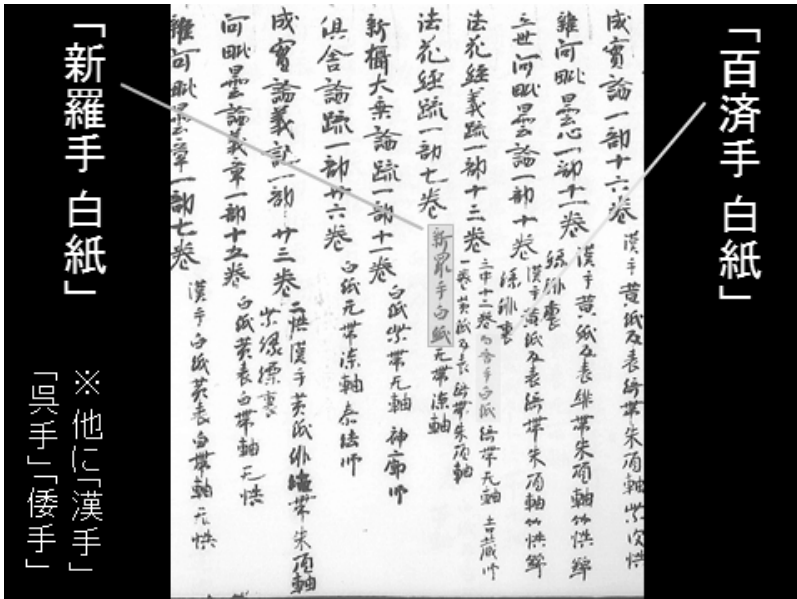
이 시대의 동아시아 문화에는 불교의 한역 불전에 그치지 않고, 널리 한자 문화라는 공통 기반이 있었다. 그 속에서 신라도 일본도 자국의 언어, 독자적인 事物, 感性을, 한자의 존재, 外來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표기할까, 그 모색 단계에 있었다. 이 점에서 신라가 선행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이용한 萬葉假名의 사용 시기이며,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앞으로 성립해 나가는 계기를 엿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군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점에서 각지에서 출토된 목간 등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지만, 經卷은 고도의 사상을 취급한 노력의 흔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 일본어학에서는 훈점자료의 최초의 것이 성어장에 많이 전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대사, 성어장의 화엄경이나 관비량론 등 신라에서 필사된 사경 그 자체도 일본 국내에서 확인되어 향후 더욱더 한국 어학, 문자 역사의 자료로도 주목 받게 되어 갈 것으로 예상 된다.

같은 대상을 서예사, 문자의 역사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정창원 문서와 함께 검토 대상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덕분에, 8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 책의 변천(육조풍의 기층으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변천을 겪은 유행의 서풍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연속적으로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불교 경전이라는 관점으로 좁혀 당, 신라, 일본 각각의 서체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성어장 경권은 고대를 중심으로 각 시대, 지역의 종이 자료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고대의 종이에 대해서는 개설의 형태로 동아시아의 종이 역사

속에 자리 매김하는 논고를 한국의 『서지학보』에 발표했다(杉本一樹 2012). 성 어장 경권은 일본에서는 제지 기술의 진진과 종이의 사회적 위상을 엿볼 好個의 소재가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당, 신라, 일본을 비교를 할 때에도 불교 경전이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는 덕분에 연구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상과 같이 내용(교리), 문자, 서풍, 종이라는 여러 요소의 검토와 동시에 그 종합으로서 경권 자체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징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 東大寺의 堀池春峰氏는 정창원 문서에 보이는 ‘百濟手 白紙’, ‘新羅手 白紙’, ‘漢手’, ‘吳手’, ‘倭手’의 기재에서 “당시 일본에서는 당, 신라, 백제, 일본의 사경을 구분하여 인식 하고 있었다”, “신라 사경에는 백지의 것이 많다”는 지적을 했다(堀池 1973, <그림 14>). 이것은 또한 한국에서는 닥종이의 전통이 현재의 “한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과 호응하여 새로운 신라 사경 말건 지표로도 될 것이다.



<그림 14>

6. 마무리

이상 앞으로의 가능성을 틀로서 표시한다는 의미로 큰 전망의 제시를 시도했다. 사실 나 자신이 성어장 경권을 사용한 연구로 달성한 것은 많지 않다. 고대의 불교를 사상사 수준의 깊이까지 파고들어 파악하기에는 이르지 않았고, 외형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정창원 문서에 대해서는 활자본 “大日本古文書”, 사진판, 원본과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에 대해 성어장 경권에 대해서는 일찍이 직원이었던 필자도 좀처럼 볼 기회는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은 디지털 출판의 계획이 시작됨으로서 크게 개선되었다. 현재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先憂後樂”이라는 말이 있다. 성어장 경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 출판 사업에 손을 대고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우선 양질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연구 자료로서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이 귀중한 문화재의 관리자로서 우선한 것이다. 그 결과 성어장 경권이 일본 국내를 넘어 많은 연구자에게 알려지고, 一巡하여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 이 “後樂”을 기대하고 싶다.

<참고문헌>

檜山和民 외. “特集 聖語藏經卷カラーCD出版記念(聖語藏經卷の整理と修理(檜山和民)/寫經の功德(高崎直道)/正倉院聖語藏本の國語學的研究について(築島裕)/聖語藏經卷と正倉院文書(皆川完一)/五月一日經『四分律』のことなど/古訓點研究と正倉院聖語藏の經卷(月本雅幸)/聖語藏經卷の撮影準備作業から(杉本一樹).” 『學鏡』 96-10, 1999.

堀池春峰. “光明皇后御願一切經と正倉院聖語藏.” 1954年. 『南都佛教史の研究』

- 上(1980)에서 재인용.
- 堀池春峰. “華嚴經講說よりみた良弁と審詳.” 1973年. 『南都佛教史の研究』 上 (1980)에서 재인용.
- 東京國立博物館. 『東京國立博物館百年史』. 1973.
- 『東大寺尊勝院院主次第』, 『東大寺尊勝院記附錄』. 『大日本佛教全書』 東大寺叢書 2.
- 東大寺圖書館. “東大寺收藏經卷調查報告 1・2(奈良時代 1・2).” 『南都佛教』 87・89(2006・2007).
- 東大寺圖書館. “正倉院聖語藏調查報告(1)奈良時代書寫の華嚴經について.” 『南都佛教』 86(2005).
- 米田雄介. “聖語藏經卷と玄奘三藏.” 『正倉院紀要』 23(2001).
- 米田雄介. “聖語藏本『成唯識論』卷四と慈恩大師.” 『正倉院紀要』 26(2004).
- 飯田剛彦. “聖語藏經卷『神護景雲二年御願經』について.” 『正倉院紀要』 34(2012).
- 山本信吉. “聖語藏『大方廣佛華嚴經 自卷七十二至卷八十』の書誌的考察.” 『正倉院紀要』 28(2006). (山本信吉(2013)에 재록).
- 山本信吉. 『貴重典籍・聖教の研究』. 吉川弘文館, 2013.
- 杉本一樹. “聖語藏經卷紀年銘集成 1・2.” 『正倉院年報』 7・19(1985・1997).
- 杉本一樹. “聖語藏經卷『四分律』について.” 『正倉院紀要』 29(2007).
- 杉本一樹. “日本古代の紙 - 正倉院の文書・經卷を中心に -.” 『書誌學報』 39(韓國書誌學會, 2012).
- 石田茂作.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史の研究』. 柏書房, 1929.
- 清水眞一. “校倉.” 『日本の美術』 419(2001).
- 横内裕人. “尊勝院聖語藏獻納について.” 『南都佛教』 86(2005).

중국	조선	일본	聖語藏經卷
A.D. 2年頃(前漢 元壽 2) 중국에 佛敎 전해지다			
148年(後漢 建和 2) 安息國의 安世高, 洛陽에 오다(譯經)			
265年(晉 泰始 1) 敦煌의 竺法護, 長安에 오다(譯經)			
372年(高句麗 小獸林王 2) 前秦王 符堅, 高句麗에 僧을 보내 佛像, 佛典을 주다			
384年(百濟 沈流王 1) 인도 僧摩羅難陀, 東晉으로부터 百濟에 와서 佛敎를 전하다			
386年(東晉 太元 2) 北魏 일어나다(道武帝)			
399年(東晉 隆安 3) 法顯, 長安을 떠나 인도를 향하다			
401年(後秦 弘始 3) 龜茲의 鳩摩羅什, 長安에 오다(譯經)			
420年(東晉 永初 1), 北인도의 佛馱跋陀羅, 華嚴經(舊譯 60卷)을 譯하다			
427年(高句麗 長壽王 15) 高句麗, 平壤으로 遷都			
439年(北魏 太延 5), 北魏, 華北 統一			
475年(百濟 文周王 1) 百濟, 漢城에서 公州 熊津城으로 遷都			
527年(新羅 法興王 14) 異次頓의 殉敎, 新羅의 佛敎 公認			
538年(百濟 聖王 16) 百濟, 所夫里(扶余)에 遷都			
538年(宣化天皇 3) 百濟 聖明王, 佛像, 經論을 보내다, 日本에 佛敎 公傳(一說552年)			
587年(用明天皇 2) 蘇我馬子, 物部守屋를 멸하다			
588年(崇峻天皇 1) 善信尼들, 百濟에 留學(590년 歸國), 法興寺(飛鳥寺) 造營 開始			
589年(隋 開皇 9) 隋, 中國 統一			
594年(推古天皇 2) 佛法 興隆의 詔			
595年(推古天皇 3) 高句麗 僧慧慈, 來日,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다			
597年(隋 開皇 17) 天台 開祖 智顓 沒			
600年(推古天皇 8) 第1次 遣隋使			
610年(隋 大業 6) 賢劫經			
618年(唐 武德 1) 唐 일어나다			
623年(唐 武德 6) 三論宗 吉藏 沒			
629年(唐 貞觀 3) 玄奘, 長安을 떠나 西域을 향하다			
630年(舒明天皇 2) 제1차 遣唐使			
640年(唐 延和 1) 華嚴宗 初祖 杜順 沒			
645年(唐 貞觀 19) 玄奘, 인도에서 歸國(譯經) 淨土敎祖師 道綽 沒			
651年(唐 永徽 2) 大乘大集地藏十輪經			
653年(白雉 4) 道昭, 入唐해서 玄奘에게 法相敎學을 배우다			
655年(唐 永徽 6) 大毘婆沙論			
659年(唐 顯慶 4) 成唯識論			
660년경(齊明天皇 6), 道昭 歸國(法相宗 初傳)			
660年 百濟 滅하다			

	661年(新羅 文武王 1) 義相(義湘), 入唐해서 智儼에게 華嚴敎學을 배우다 668年(新羅 文武王 8) 高句麗 멸하다
668年(唐 總章 1)	華嚴宗 第2祖 智儼 沒
	676年(新羅 文武王 16) 新羅, 半島統一. 義相(義湘), 浮石寺를 建立. 華嚴宗을 열다
681年(唐 永隆 2)	善導(淨土敎을 大成) 沒
681年(唐 永淳 1)	法相宗 初祖인 窺基 沒
	686年(新羅 神文王 6) 元曉 沒
693年(唐 永淳 2)	南인도의 菩提流志, 洛陽에 오다(譯經)
695年(周 天册萬歲 1)	義淨, 인도로부터 洛陽에 돌아오다. 于闐의 實叉難陀 洛陽에 오다(譯經). 華嚴經(新譯80卷)을 譯하다
	702年(新羅 聖德王 1) 義相(義湘) 沒
712年(唐 延和 1)	華嚴宗第3祖 法藏 沒
	718年(養老 2) 道慈 唐에서 歸國하여 三論宗을 전하고 大安寺에 살다.
730年(唐 開元 18)	智昇 『開元釋敎錄』
	735年(天平 7) 玄昉. 唐에서 經論 5千卷餘를 가지고 돌아오다 740年(天平 12) 光明皇后願經五月一日經 願文 740年(天平 12) 新羅 留學僧 審詳 『華嚴經』을 강독하다. 750年(天平勝寶 2) 維摩詰經 752年(天平勝寶 4) 東大寺 大佛 開眼 供養 754年(天平勝寶 6) 唐僧 鑑眞, 東大寺 大佛 前에서 聖武天皇에게 授戒 754年(天平勝寶 6) 大方廣佛華嚴經 755年(天平勝寶 7) 五月一日經의 勘經 768年(神護景雲 2) 稱徳天皇願經 774~776年(寶龜 5~7) 今更一部一切經 書寫
798年(唐 貞元 14)	北인도의 般若, 華嚴經(40卷)을 譯하다 798年(延曆 17) 觀佛三昧經
	825年(天長 2) 法華決釋記

